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중단 평화실현!

다시 찾은 노동절, 가자 노동자 시대!

2026 세계노동절대회

2호

2026년 4월 14일(화) / <https://www.kmwu.kr> / 02-2670-9555 / 금속노조 교육실

다시 찾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노동자의 주체성을 지우기 위해 강제로 명칭을 바꾼 지 62년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2026년 5월 1일, 당당하게 '노동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명칭의 회복은 단순히 글자를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 하는 '반쪽짜리 휴일'이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단순한 휴일을 넘어,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견어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세계 노동절 역사와 정신

140년전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며 전세계 노동자 투쟁의 날로

1886년 미국은 다이아몬드로 이를 해 넣고 과시할 정도로 넘쳐나는 부를 누리던 자본가들이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맡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1886년 5월 1일, 전미노동총연맹(FOTLU)을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시카고시 8만 명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30-50만 명이 동참했다.

5월 4일, 탄압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 오는

날씨 속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찰이 해산명령과 강제 진압을 시도하던 중 사제폭탄이 터졌다. 폭발 직후 경찰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경찰 7명과 노동자 다수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1886년 5월 1일

8만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과 가족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전국적인 파업을 전개했다

8시간 노동운동의 주동자 8명이 폭동죄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7명에게 사형, 1명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1887년 11월 11일,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1명은 옥중 자결)되었다.

헤이마켓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에 큰 영감을 주었다. 헤이마켓 사건 이후 시카고의 노동운동은 크게 성장했고 8시간 노동도 현실화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89년 7월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제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날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고르고 있다. 이 들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 사형 선고를 받은 미국노동운동가 스파이스 (August Spies, 1855~1886) 법정 최후 진술

투쟁으로 쟁취한 한국 노동절!

한국의 노동절 역시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1923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노동연맹회’ 주도로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주도로 2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투쟁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끊임없이 노동절을 지우려 했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꿨고, 박정희 정권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꿔가며 주체적인 노동자의 의식을 지우고 노동자를 정권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1989년 ‘노동절 전통 회복’을 선언하며 끈질기게 싸워왔다. 1994년 5월 1일로 날짜를 되찾은 데 이어, 마침내 2026년 우리는 온전한 이름과 공휴일 권리까지 모두 되찾았다. 이 모든 역사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피어린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6 세계노동절,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 중단 평화실현!

① 원청교섭 쟁취와 초기업 교섭 돌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지만, 자본은 여전히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원청교섭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재까지,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등 147곳에 종사하는 조합원 1만 명이, 실질적 지배 결정력을 행

사해 온 16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교섭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원청 자본은 더 이상 하청뒤에 숨지 말고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나오라. 불응 시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정부는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노동자의 교섭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모든 역할 다하라. 단체교섭은 노동자에 부여된 헌법상 권리다. 이 권리를 방해하는 제도가 지금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다.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창구단일화 제도를 전면 폐지·개편하는 일이다.

도급,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직접 마주 앉아 고용안정과 임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통해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조직하고, 더 커진 단결의 힘으로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원청 자본이 끝내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②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 명을 넘어선 시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산재와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2조의 개정으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반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하는 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의 ‘차별지대’를 없애야 한다. “사업장이 작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작은 것은 아니다” 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이주노동자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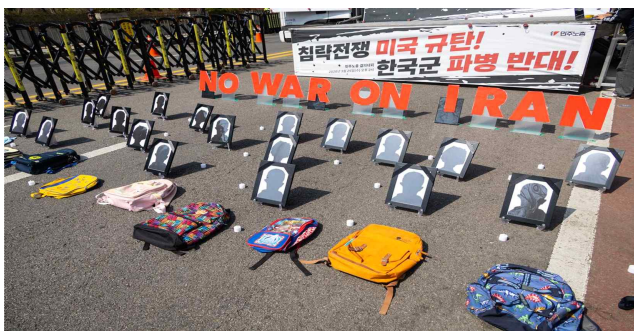
③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실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원청교섭 보장, 돌봄·의료·교통 공공성 확대,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노동 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내 비정규직의 직영화 등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자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도록 요구하자.

아직도 내란세력의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투쟁을 온전히 매듭짓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불평등 체제를 끝내고 노동 중심의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일궈내자.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국가 책임 돌봄 체계 마련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 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

④ 미국의 침략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저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고조된 중동지역의 긴장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란의 반격과 경제압박에 직면하자 ‘협상’을 거론하던 트럼프 정부는 ‘이란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48시간 유예’ 선언 등으로 협박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학살을 ‘승리’로 포장하는 야만성을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광기 어린 협박은 스스로가 전쟁 범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자백이나 다름없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본질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피를 짜내는 약탈에 있다. 전쟁은 거대 독점 자본가들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생존권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당하며 고통받는 이들은 언제나 노동계급과 민중이었다.

노동절(May Day)은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 온 역사이다.

노동절의 정신은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전쟁에 맞서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으로 이어져 왔다.

전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노동자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하며 투쟁해왔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그 위험천만한 짐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어떠한 명분으로든 파병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군수·물류·방산·현장 전반에서 전쟁 수행에 동원되어 생명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야만적이고 패권적인 횡포를 멈춰 세우는 투쟁은 곧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다. 한국군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도구로 내몰려는 모든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자. 전쟁 중단, 반전 평화 투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원청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중단 평화실현!
다시 찾은 노동절, 가자 노동자 시대!

2026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 (금) | 전국동시다발

서울	15:00 동화면세점 앞
인천	14:00 인주대로
경기	15:00 장소 추후 공지 *사전대회 및 행진 14:30
충북	10:30 청주대교
대전	10:30 대전시청 남문
세종충남	11:00 당진 현대제철 정문
전북	14:00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00 광주광역시청 앞
대구	14:00 2.28 기념중앙공원 북측 도로
경북	14:00 포항 협력회관 앞
부산	14:00 전포 대로
울산	14:00 울산시청 남문
경남	14:00 창원 최은덕 장군상 앞
강원	14:00 강릉월화거리
제주	11:00 제주시청

이제는 노동자시대!